

# “지역화폐 쓸 곳이 없다” 지역민들 불만 폭주

### “동네마트서도 못 사”...사용 가맹점 축소에 병원·주유소 사용 불가 광주·전남 23종 사용 중...잔액 환불도 까다로워 “소비 조장” 지적

#.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사는 김모(여·48)씨는 운동을 마치고 평소 자주 가던 동네 마트에 들렀다가 아무것도 사지 못했다.

지난 1일부터 해당 마트에서 광주상생카드 이용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인근에 있는 기존 가맹점으로 발길을 돌렸으나 광주상생카드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씨는 “가맹점마다 상생카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환불조차 쉽지 않아 남은 금액 처리가 곤란하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 생활비를 조금이나마 아끼기 위해 매달 광주상생카드를 충전해 사용하고 있는 유민주(여·33)씨는 이번달부터 상생카드 사용처가 줄어들어 난감해하고 있다.

그동안 다니던 병원부터 주유소, 학원에서까지 광주상생카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유씨는 “물가는 오르는데 상생카드 사용처가 줄어들어 갈수록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지역화폐 정책을 제한함에 따라 사용 범

위가 대폭 축소되면서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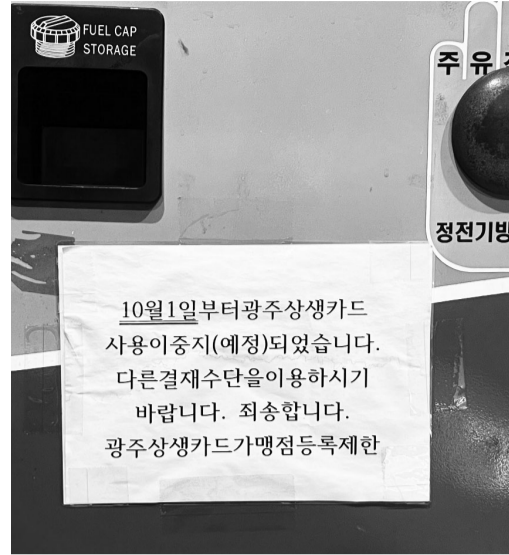
가맹점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동네 마트부터 병원, 주유소, 학원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던 가맹점이 사용처에서 배제된 탓이다.

2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의 지역화폐는 지난 2019년 도입된 ‘광주상생카드’, 전남은 시·군별로 목포지역사랑상품권 등 총 22종이 발행되고 있다.

지역화폐는 평균적으로 전체 충전금액 대비 7%~1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전남 일부 인구소멸 지역은 최대 10%까지 할인이 적용돼 지역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액면가 10만원짜리 지역화폐를 9만원을 내고 구입하거나 충전해 10만원 어치 상품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정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광주·전남의 지역화폐 가맹점이 대폭 축소됐다.

주부들은 광주·전남 맘카페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주모 다니던 동네 마트에서 모두 상생카드



22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의 한 주유소에 광주상생카드 사용 중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가 불가능하다고 해 당황스럽다’는 글이 주류를 이룬다.

한 주부는 “그동안 상생카드를 사용해 쌀을 비롯해 칫솔 등 생필품을 샀는데 이제는 불가능하다”면서 “이럴 바에는 환불 해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주부들의 바람과 달리 광주상생카드 환불은 사

실상 불가능하다. 전액 환불은 최초 충전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다른 주부는 “차액 환불이 불가능해 동네 작은 마트를 겨우 찾아 금액을 다 썼다”고 토로했다. “우리 동네에는 작은 마트 하나가 있던 한데 너무 작아서 살 만하게 없다”는 댓글도 있다.

전남의 경우 사회 편의시설도 부족해 각종 생필품 구매를 농협 마트에 의존하고 있지만 사용이 제한돼 사실상 쓸 곳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광주지역 식자재 마트나 주유소는 “10월 1일부터 광주상생카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라는 안내문을 속속 게시하고 있다.

한 농민은 “시골에서는 농협 마트 말고는 지역화폐를 쓸 만한 곳이 거의 없는데 이제는 무용지물이 돼버렸다”며 “굳이 지역화폐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담당부서에도 ‘사용처가 너무 적다’는 민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광주 지역화폐 담당자는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불편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전해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며 “고물가에 어려운 시대 한푼이라도 아껴쓰기 위해 광주상생카드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 행안부에 예산 확대를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인사위 의결 서면 통지 안한 수습 직원 해고는 위법 판결

수습기간이라도 인사위원회 절차와 의결 내용을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나경)은 A씨가 B축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B조합은 A씨가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39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농축협 신규직원 전국 동시 채용’에 합격해 같은 해 9월 B 조합에 ‘수습계약’로 채용됐다. B조합은 A씨에 대해 2021년 12월 근무평정을 실시한 데 이어 같은 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수습직원 근무계약 해지’ 안전을 의결해 서면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수습채용 1개월이 됐을 무렵 상사에게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달서를 작성했고 또 한달 만에 유사한 잘못을 저질러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A씨는 직장갑질에 의한 해고이고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 해지는 실질적 해고에 해당해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돼야 하는데 A씨는 인사위원회에 관한 절차 내지 구체적 의결내용 통지를 받지 못해 근로계약체결 거부에 관한 사유가 통지됐다고 볼 수 없어 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순천 사료공장 폭발 사고...작업자 2명 사망

### 용접작업 중 참변 당한 듯

순천의 한 사료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숨졌다.

22일 순천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께 순천시 별량면 한 사료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

생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남성 A(66)씨와 40대 태국인 남성 B(50)씨가 숨졌다. 한 명은 작업 장소에서 숨진채 발견됐으나 다른 작업자는 폭발 충격으로 옆 건물 지붕에서 발견됐다.

이들은 옥수수유 저장 탱크에 설치된 외부 난간

용접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A씨와 B씨만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옥수수유 저장 탱크에 있던 유증기와 용접 불꽃이 접촉하면서 폭발한 것으로 보고 사고원인과 공장 관계자들의 안전조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담양 금강사 불 22일 새벽 2시 20분께 담양군 월산면 금강사 대웅전에서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웅전과 컨테이너 2개가 전소됐다. <담양소방 제공>

## “여순사건 관련 재심 신속 진행되도록 할 것”

### 박병태 광주지법원장,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답변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은 “여순사건 등과 관련한 재심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각급 지방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원이 “여순 재심 사건 유족들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하자 이같이 답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는 ‘여순사건 당시 군정 포고령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해 무효’라는 취지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는 재심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소 의원은 “여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진행 중”이라며 “유족들이 대부분 고령이기 때문에 여순사건 유족들은 내용 자체도 잘 모르

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 의원은 “보통 재심사건은 기일 지정이 매우 늦게 되는데 여순 사건의 경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재심 기일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특히 여순사건은 당시 사건 기록들이 없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박 원장은 “전날 순천지원에서 여순사건으로 학살 당한 민간인 희생자 4명에 대한 선고가 나왔다”며 “미 육군의 포고령 제2호의 내용은 위헌으로 무효이며, 내란죄의 경우 범죄사실의 증명에 없이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검찰의 항소 여부는 모르겠지만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면서 “관련 재심 사건 있다면 재판 기일을 빨리 할 방법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낚시 하던 60대 부부 텐트에서 숨진 채 발견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추정

광주시 북구 생용동 대야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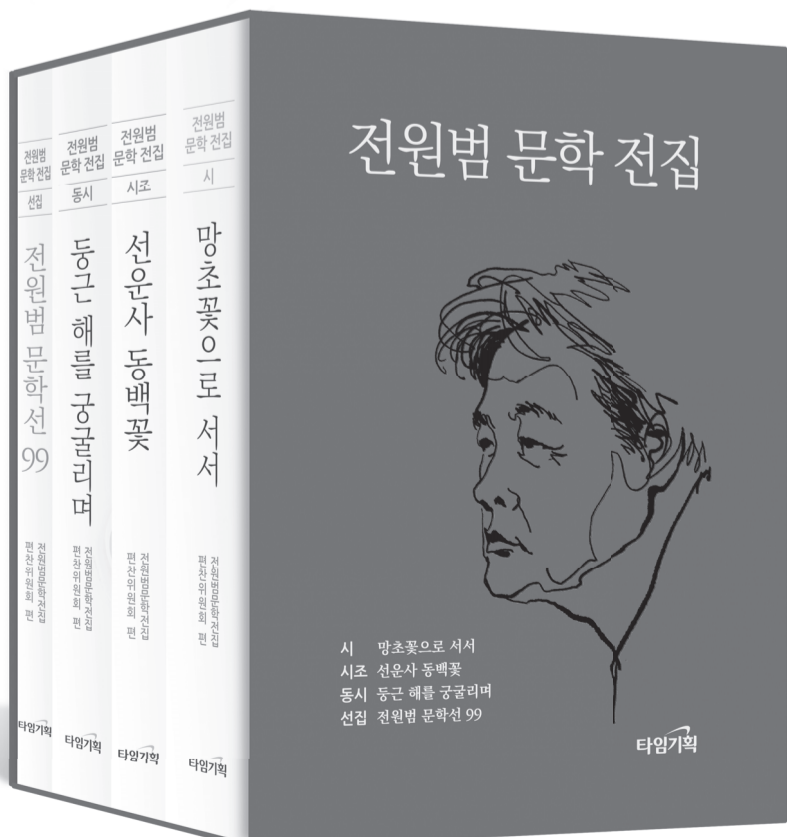
22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0분께 광주시 북구 생용동 대야저수지 인근 텐트에서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주변에서 낚시하던 한 시민에게 발견됐다. 이들은 지난 20일까지 낚시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부가 텐트에서 휴대용 가스용품 켜고 자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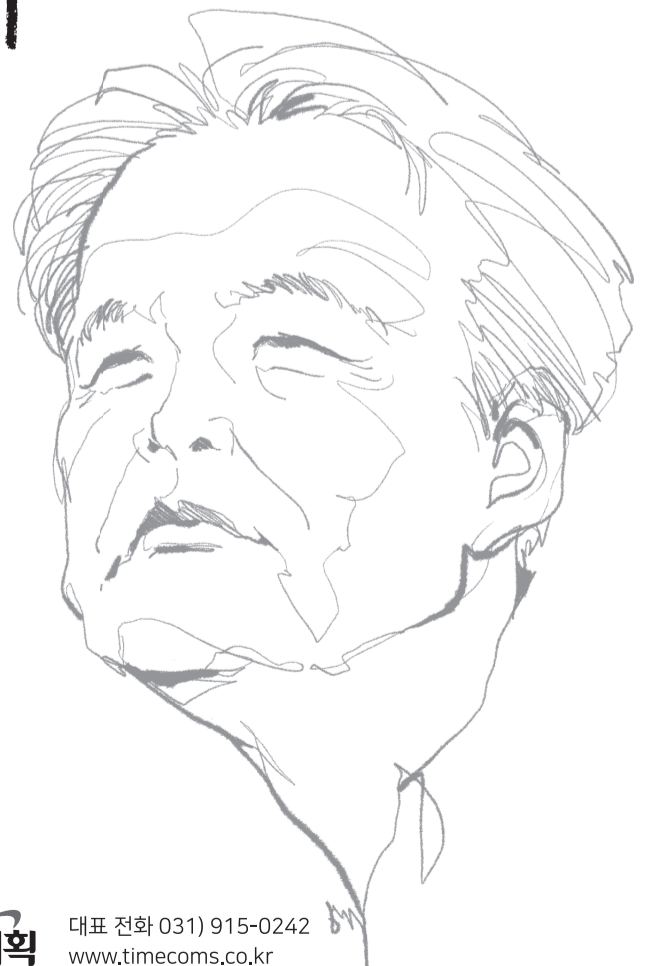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 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임창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관(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역류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